

5) 기 타

(1) 송광사 경질

2매로 된 이 경질은 불경을 맡아두는 책갑의 일종으로 고려시대 제작품인데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는 희귀한 것이다. 가느다란 참대조각을 색실로 엮어서 장방형으로 만들고 끝단에는 삼각형의 비단 베를 붙여 그 끝에 끈을 달아 경책을 맡아두게 하였다. 대쪽은 색실로 엮어 꽃무늬를 넣고, 둘레에는 비단을 둘러 그 안에 종이를 발랐다.

손상이 매우 심한 편이지만 색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문양은 지금도 생생하고 정교하다. 비록 헐고 그 형체만 남아 있을지라도 이는 불교신앙에서 우리나라의 미술공예품으로 고승들의 정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죽제(竹製) 경질의 크기는 하나는 가로 71cm, 세로 32.5cm이고 또 다른 것은 가로 59cm, 세로 32.5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2) 송광사 경패(經牌)

이 경패는 불경을 넣은 목함에 달아서 불경의 내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것이며, 현재 43개가 남아 있다. 표면에 액(額)을 만들고 경명(經名)과 번호를 새기고 둘레의 가장자리에는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했는데, 그 문양은 연주문·당초문·학문 등으로 다양각색이다. 또 밑으로는 보살·나한·신장상 등이 양각되고 정(貞)·주(周)·진(晉)·하(何)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형식은 대체로 밑은 방형이고, 위는 호형이어서 위패형과 같고 조각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료는 상아와 목재이고 크기는 높이 122~162cm, 너비 2.3~3.5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75호로 지정되었다.

(3) 송광사 금동요령(金銅搖鈴)

이 요령은 불가에서 법요를 행할 때 사용한 불구(佛具)로서 몸은 4각형이고 각 면이 팽창되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어깨부분은 원형을 이루어 반구형이 되었고, 하단은 각 우각을 정점으로 각 면을 향하여 사선을 그리다가 중앙에서 반원형이 되었으며, 단조로워지기 쉬운 구연부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다. 몸 위에는 중앙에 마디가 있는 긴 손잡이가 있으나 몸과 접촉되는 곳에 후보의 흔적이 있고 상단부도 손상을 입고 있다. 몸의 전면에는 문양이 양각되었는데 구연 주위에 용기선을 돌리고 여기 붙여서 내면에 화관문이 연속되고 있다. 이 윤곽 안 각 면에는 몸을 들고 위로 치솟는 도안화된 용 한 마리씩이 양각되었으며, 그 사이에는 운문이 조각되었다.

이 불구의 형태는 우아할 뿐 아니라 조각도 수려하여 현존하는 요령 중에서도 걸작에 속하며, 제작연대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규모는 높이 20.6cm, 직경 6.6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76호로 지정되었다.

(4) 송광사 자정국사 청자사리합(靑磁舍利盒)

이 사리함은 뚜껑이 있는 청자함으로 자정국사의 사리를 보관하였다고 하나 현재 사리는 없고 용기만 남아 있다. 뚜껑에는 국화문·운학문·연화문 등이 시문되었고, 유약은 미세한 빙렬(氷裂)이 약간 있으나 비교적 얇게 시유되었다. 크기는 지름 15cm, 높이 7cm이며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5) 송광사 능견난사(能見難思)

이 능견난사는 송광사 제6세 원감국사가 원나라에 다녀오면서 가져왔다고 전한다. 동으로 만든 불구의 일종으로 불가에서 반식기로 사용한 것인데 보고도 만들 수 없어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현재 29개가 송광사에 남아 있으며, 크기는 지름이 16.7cm이고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6) 선암사 동제은입사향로(銅製銀入絲香爐)

이 향로는 전형적인 고려향완으로 은입사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다. 형식은 구연부에 넓은 전이 달린 사발 모양의 몸통과 나발 모양의 받침으로 구성된 통식이다. 몸체에 ‘만’자와 ‘범(梵)’자가 시문되었을 뿐 다른 명문은 없다. 크기는 높이 29.5cm, 구연부 지름 31.5cm, 바닥 지름 19cm이며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7) 선암사 전도선국사직인통(傳道洗國師職印筒)

이 직인통은 목조원형과 팔각의 개합식으로 3개이다. 도선국사가 직접 사용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문헌이나 다른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각종 기법이나 철제장식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높이 15~17cm, 바닥 지름 16~19cm이며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8) 송광사 금강저(金剛杵)

이 금강저는 삼고(三鈷)형식으로 중앙의 손잡이부분에 화문과 연화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금강저는 절에서 승려가 수법(修法)할 때 사용한 불구의 일종이며 보제심(菩提心)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재료는 동이며, 크기는 길이 30cm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9) 송광사 팔사파문자(八思巴文字)

이 문자는 몽고문자이며, 팔사파라는 말은 사람 이름으로 티베트 후기 밀교 샤카파의 승 빠끄빠(1235~1280)를 가리킨 말이다. 이것은 원감국사가 고려 충렬왕의 명을 받고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 세조가 신분을 보장하는 여행증으로 준 것이라고 전하나, 아직까지 해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문자가 써 있는 종이의 크기는 가로 61

cm, 세로 48cm이며 지방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의상(衣裳)으로 선암사에 금란가사와 용문탁의가 있다. 이것들은 대각국사 의천의 유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근거는 없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인지 보존상태가 좋지는 않으나 의상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